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과 노동의 의미에 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趙 容 一

2012年 8月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과 노동의 의미에 대한 연구

指導教授 許允德

趙容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6月

趙容一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2年 8月

<국문초록>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과  
노동의 의미에 대한 연구

趙 容 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許 允 德

본 논문의 목적은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가 자연과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현실을 인식하고 불안한 생존의 조건 속에서 인간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스트가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와 현명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

프로스트는 뉴잉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많은 시를 썼다. 그의 시의 대부분은 인간과 자연, 자연속의 인간을 주제로 하고 있다. 프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자연을 어둡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고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자연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그는 궁극적인 실재를 찾고자 자연에 맞서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프로스트는 자연이 인간에게 냉담하며 심지어는 해를 가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악의적인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무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자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인간 자신들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며 자연이라는 환경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지배아래에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악의를 품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러한 자연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 하는 한편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여 현실세계의 삶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그의 시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인간에게 자연의 무질서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자연속에서 노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관념상으로는 아닌 실질적인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실체와 맞서는 것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이다.

프로스트는 노동의 메타포를 통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연에 맞서는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창조적 노동 행위는 인간 스스로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는 인생에 대한 해명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을 통하여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필요와 생계유지에 의한 노동과 취미의 노동이라는 양면성을 밝혀 그것이 생활에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그의 작품에서 노래하고 있다. 프로스트는 노동의 실용성과 노동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조화를 이룬 형태를 이상적인 노동으로 보았으며, 실용적 측면인 생계만을 위한 노동을 강조할 경우 인간의 삶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그의 시에서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여 수용하며, 한편으로는 인간 자신들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며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여 현실세계의 삶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그의 시에서 표현하고 있다.

비록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위협적인 자연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면서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프로스트의 시가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이와 같은 불안한 자연 속에서 노동을 통한 고뇌극복의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노동자체를 즐기는 과정 속에서 삶의 기쁨과 인간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 목 차

I. 서론 .....	1
II. 본론 .....	5
1. 자연의 의미 .....	5
1) 자연과 인간의 관계 .....	5
2) 자연의 양면성 .....	13
2. 노동의 의미 .....	29
1) 노동의 양면성 .....	29
2) 노동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	40
III. 결론 .....	49
Bibliography .....	52
Abstract .....	56

## I. 서론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는 생의 대부분을 뉴잉글랜드지방에서 보내면서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며, 자연의 여러 모습과 인간들의 다양한 면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보다 사실적으로 그의 시에 표현하였다. 그는 자연과 함께 등장하는 인간의 존재 즉, 자연속의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를 썼다. 특히 그는 자연과 관련해서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이 겪는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그의 시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가 가지는 갈등과 그 조화 및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프로스트는 자연에 대한 예찬이나 자연과 인간의 영적인 합일을 추구하는 워즈워드(W. Wordsworth)나 기타 19세기 낭만파 시인들과는 달리 그의 시들은 사실의 기술에 충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걸은 “파운드가 문명 비판적인 시를 보여준다면,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주요 관심사는 인생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이다”<sup>1)</sup> 라고 기술하였다. 그는 자연의 현상들을 관조하는 자세로 들여다보지만 그 비밀을 헤쳐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자연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과 통찰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자연의 섭리를 시를 통해 명상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명하려 하였다. 이 인생에 대한 해명이 그의 시작품의 중심이며 목표인 것이다.

시는 즐거움에서 시작하여 지혜로 끝난다. 이 비유는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황홀감이 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한 자리에 정지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기쁨에서 시작하여 충동에 기울고, 첫 줄로 방향을 잡아 행복한 사건을 거친 후 인생의 해명(clarification)으로 끝이 난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이론에 근거를 둔 무슨 종파의 기초가 될

1) 이영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의 인생론적 의의,」 『영어영문학』 51-52, 한국영어영문학회, 1974, pp.68-85

만한 거대한 해명은 아니라도 혼란에 대한 일시적인 버팀목(stay)은 될 수 있다.<sup>2)</sup>

프로스트는 시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인생의 불확실성, 그리고 현실의 혼란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해명이고 혼란에 대한 일시적인 버팀목 즉, 거대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혼란에 대한 소소한 해명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를 관찰하기위해 그는 현실로 존재하며 가시적이며 인간존재의 근거가 되는 자연을 통해 삶의 문제를 인식하려 하였고, 그 표현의 대상도 자연인 것이다.

프로스트는 자연을 즐겨 노래하였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노래함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반드시 인간과의 화합, 갈등, 보완, 융합 등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그가 관찰한 자연은 그의 시에서 양면성을 가지는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객체적 존재인 자연이 가지는 본래의 모습인 것이다.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궁극적인 자연이기도하고 위협적이고 파괴적이며 무관심한 양상을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의 자연이기도 하다.

프로스트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진지함과 철학적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프로스트는 자연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비평가들이 프로스트의 자연을 바라보는 탁월한 시각과 농부로서의 명민함 그리고 야만적인 자연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발견하는 했으나, 그들은 프로스트의 자연시와 우리를 제약하는 19세기의 자연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sup>3)</sup> 프로스트는 시의 소재가 되는 거대한 섭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혼란과 갈등을 겪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의 배경과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작품 속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보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두려움, 소외, 상실감과 단절감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자연은 냉혹하고 무관심하며 인간에게 미와 위협을 동시에

2) Robert Frost, "The Figure a Poem Makes," *Selected Prose of Robert Frost*, Ed. Hyde Cox and E.C. Lathe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p. 18.

3) John F. Lynen,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Nature and Pastoralism* (New Haven: Yale UP, 1960), pp. 140-161.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의미를 띤다. 프로스트는 인간의 현실로서의 자연을 다루면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고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실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엄연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현실적이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한다.

프로스트는 자연에 맞서서 끊임없이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며 그에 대한 삶의 해명을 제시한다. 이렇게 그의 시에서 자연은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양면적인 면을 지니게 된다. 이점에 관하여 스콰이어스(Radcliffe Squires)는 “내 생각에 프로스트는 가깝고도 먼 자연과 일시적이면서도 영원한 자연 사이에 통합을 애써 시도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정신이 서로 다투고 긴장이 고조되는데 그는 그 문제를 풀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sup>4)</sup> 라고 언급한다. 인간에 대한 자연의 위협이란 본래 자연이 가지는 불확실에 기인한다. 이 자연속의 인간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역시 또 하나의 메타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프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자연이라는 배경의 상징을 사용하여 그 속에서 인간의 노동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관념상으로는 아닌 실질적인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실체와 맞서는 것이다. 또한, 프로스트는 노동의 메타포를 통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연에 맞서는 인간만의 행할 수 있는 창조적 노동 행위는 인간 스스로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는 인생에 대한 해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현실에서 노동을 통한 본연의 역할과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이 가지는 불확실에 기인한 임의적인 변화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이러한 자연에 맞서는 인간행위가 노동인 것이다. 그의 시작(詩作)에 있어서 ‘질서의 회복’은 그가 추구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일하기, 집짓기, 땅 가는 일, 나무베기 등의 모든 행위가 바로 노동의 도구로써 자연의 혼란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려는 인간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불확실성의 자연 또는 현실에 맞서는 인간 행위가 프로스트에게는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그의 시에서 노동은 인간에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

4) Radcliffe Squires, *The Major Themes of Robert Fros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3), p. 48.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끈질기게 집착하는 숙명적인 노동이며, 다른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꿈으로서 일 그 자체가 즐거운 노동인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노동 사이에는 복잡하고 불확실에 기인한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현대인을 갈라놓는 절대적인 벽일 수도 있다. 프로스트의 생각으로, 아마도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절대적인 벽 중의 하나는 임금(賃金)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위해 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를 나눠놓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sup>5)</sup> 즉, 프로스트가 의도적으로 그의 시에서 표출시킨 이러한 벽의 이미지는 노동이 갖는 두 가지 양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임금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동이라는 측면과 사랑에 의한 즐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측면이다. 이러한 노동의 양상은 그의 시에서 대립적이기도 하고, 조화롭게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프로스트가 주장하는 바는, 노동은 ‘필요’에 의한 측면과 ‘사랑’을 위한 측면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생계(Vocation)를 위한 노동이고, 후자는 즐거움(Avocation)을 위한 노동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양면성을 인식한 프로스트는 두 가지면이 조화될 때 이상적인 형태의 노동이 인간에게 힘겨운 삶의 고통을 해방시킬 수 있고 '노동'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프로스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노동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프로스트가 추구한 현실과 이상의 조화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양면성을 가진 자연이 프로스트의 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인간에게 호의적인 모습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수용과 도전을 통한 극복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프로스트가 추구한 현실과 이상의 조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의 노동, 그리고 생에 기쁨을 주는 노동의 양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동의 실용성과 노동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조화를 이룬 형태를 이상적인 노동으로 보는 프로스트의 인생관을 살펴볼 것이다.

5) John Robert Jr., Doyle, *The Poetry of Robert Frost : An analysis* (New York : Hafner Press, 1962), p. 66.

## II. 본 론

### 1. 자연의 의미

#### 1) 자연과 인간의 관계

프로스트가 다루는 자연은 근본적으로 현대의 자연과 속성을 같이하고 있어 법칙으로서의 자연이나 초월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자연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프로스트의 시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워즈워드(Wordsworth)의 낭만주의 시처럼 시냇물, 돌담, 나무, 바다, 별 등의 일상적인 자연 대상을 소재로 한다. 프로스트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봄에서 겨울에 이르기까지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던 뉴잉글랜드 지방의 숲과 들판이며 개울, 초목, 꽃, 목장, 새소리, 호수, 눈 내리는 밤, 폭설, 밤하늘의 별, 계절의 변화 등의 소재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은 일종의 수단과 도구이지 단순히 시의 배경으로만 등장한다든지 도취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아니다. 영국의 낭만파 자연시인들이 주관적 시선으로 자연을 관찰하는데 반하여 프로스트는 이러한 자연을 사용하여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삶과 인생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사실적인 입장에서 관조하는 자세를 취한다.

몽고메리(Marion Montgomery)는 워즈워드와 프로스트를 비교하여 “프로스트의 시의 큰 주제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인 반면 워즈워드는 자연의 전경 자체를 서정적으로 그려 낸다”<sup>6)</sup> 라고 말한다. 워즈워드와 같은 낭만시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 속에는 우주의 혼(sprit)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어서 인간이 그 혼을 느낄 때 숭엄한 의식을 얻게 되고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프로스트의 자연은 아름답고 자비롭기도 하지만 냉엄하여 시인은 그 앞에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워즈워드가 주로 자연세계의 파노라마를 감

---

6) Marion Montgomery,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138.

정적으로 잘 전개하는 반면에 프로스트는 자연에서의 인간의 드라마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프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 그 자체를 감탄하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다. 워즈워드나 자연에 도취되어 흘러넘치는 감정으로 자연을 찬미하며 인간을 그에 몰아일체 시킨데 반해, 프로스트는 자연보다 인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연에서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내용을 시에 담아 자연과 인간을 일치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sup>7)</sup> 프로스트의 자연은 더 이상 감상의 대상이 아니고 늘 시적 화자와 거리를 둔 채 모호한 속성으로 묘사된다. 자연은 냉혹하고 무관심하며 인간에게 미와 위협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띤다. 프로스트는 인간의 현실로서의 자연을 다루면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고,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실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론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이 시를 쓰는 목적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자연을 배경으로 삼은 인생의 해명이며, 인간들의 삶은 복잡하고 난해하고 다양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있어서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 속에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프로스트는 자연 속에 녹아있는 섭리를 시적 상상력인 비유를 통해서 삶에 대한 문제를 규명해 보려 했다. 그에게 있어서 시에서 만들어지는 비유란 “특정대상이나 장면, 혹은 행동에 대하여 관찰하면서 느끼는 기쁨에서 시작하는 것이면서 관찰된 현상이 인간의 보다 큰 통찰력의 일부로 체화되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는 것으로 끝이 난다.”<sup>8)</sup> 그의 시에 있어서 비유의 핵심은 메타포를 의미하며 이는 그의 시를 표현하는 요체이다. 포터(James Potter)가 “프로스트의 모든 메타포는 상징을 포함하여 모든 비유 언어를 의미 한다”<sup>9)</sup>라고 말한 것처럼 프로스트의 메타포는 가장 넓은 의미인 상징까지도 포함 한다.

프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순환을 메타포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것은 머물지 않는다」 (“Nothing Gold Can Stay”)에서, 프

7) Montgomery, p. 138

8) James M. Cox,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el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62). p. 141

9) James L. Potter, *Robert Frost Handbook*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0), p. 164.

로스트는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을 다루면서, 자연의 법칙의 흐름을 성숙에서 쇠퇴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연의 본질이 순간적이며 허무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사람을 인생의 주기와 관련시켜 식물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은 곧 식물이다’라는 메타포가 형성 된다. 그의 시에 나타난 봄은 원기를 회복하는 계절이지만, 프로스트는 항상 그 아름다움이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봄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인생의 시작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보는 의식이 그의 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있어서 계절의 순환은 인간 감정의 고저, 삶과 죽음사이에서의 경계, 그리고 인간 영혼의 정지와 재탄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프로스트는 '나뭇잎'과 '눈'을 그의 이러한 의도를 나타내는 데에 자주 사용한다.

자연의 첫 초록은 황금빛  
 잡아두기 제일 어려운 빛깔.  
 자연의 이른 잎은 꽃.  
 허나 짧은 시간밖에 가지 못하고  
 잎은 잎으로 가라앉고 만다.  
 것처럼 에덴은 슬픔에 빠져들었고  
 것처럼 새벽은 낮으로 내려앉는다.  
 황금빛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Nature's first green is gold,  
 Her hardest hue to hold.  
 Her early leaf's a flower;  
 But only so an hour.  
 Then leaf subsides to leaf.  
 So Eden sank to grief,  
 So dawn goes down to day.  
 Nothing gold can stay.<sup>10)</sup>

이른 봄의 어린잎의 색깔이 노란잎은 약간의 금빛을 띄고 있는 ‘젊은색’이다. 그런데 이 자연의 첫 푸름인 금빛의 빛깔은 변하여 아름다움 또한 사라지기 때문

10) Robert Frost,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London: Jonathan Cape, 1977). 이하 인용되는 프로스트의 시는 이 시집에 의하여 인용하고, 이후 인용작품의 출처는 인용문 끝의 괄호 안에 제목과 행수를 밝히도록 함.

에 유지하기 어려운 빛깔이다. 즉 황금색(gold)이 가지는 영원불변의 속성을 이용하여 지속되어야 할, 이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른 잎은 꽃이 되지만”)은 자연 속에서 허무하게 곧 사라질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연의 쇠퇴는 노쇠(가을)를 거쳐 죽음(겨울)으로 움직이는 순환의 패턴으로 조화를 이룬다. 새벽도 낮으로 바뀌고 무한한 아름다운 순간들,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할 황금빛 또한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우주의 순환의 법칙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된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순환과정에서도 자연의 파괴적인 힘은 항상 작용해 인간의 삶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의혹」(“Misgiving”)에서 시인은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가을에 공중으로 날려가서 떨어지는 잎들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묘사한다.

나뭇잎들이 봄에 가지를 사방으로 펼친 이후로  
 그들은 이렇게 날려갈 것을 약속해 왔지만,  
 지금은 그 밤 동안에 보호해 줄 담장,  
 수풀 또는 우묵한 장소를 간절히 찾고 있다.

.....

나는 오직 내가 자유로워 질 때  
 그들이 삶의 영역을 넘어 자유로이 지식을 추구하며  
 스스로 가는 것처럼 휴식이 나에게  
 더 나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희망해 본다.

Since ever they flung abroad in spring  
 The leaves had promised themselves this flight,  
 Who now would fain seek sheltering wall,  
 Or thicket, or hollow place for the night.

.....

I only hope that when I am free  
 As they are free to go in quest  
 Of the knowledge beyond the bounds of life  
 It may not seem better to me to rest. (*Misgiving*, 6-17 )

이 시에서 나뭇잎들은 처음에는 바람과 함께 또 다른 영역으로 갈 것을 기꺼이 약속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이 죽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여러모로 꺼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일인칭으로 바뀌면서 이런 자연의 법칙이 인간에게도 해당된다. 죽음을 자유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화자가 죽게 될 때, 그의 영혼이 휴식하는 무(無)의 상태로 되기보다는 무한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용기를 가질 것을 희망한다. 또한 가을의 풍경을 인간의 불안함과 비교해 놓고 있다. 즉 시인은 가을에 떨어져 사라지는 나뭇잎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노래하고 있으며 화자를 통해 죽음에 임하는 인간의 자세와 그 죽음에 그냥 굴복해 버릴 수 없다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또한, 「낙엽을 밟으며」(“A Leaf-Treader”)에서는 가을의 떨어지는 낙엽을 이용하여 계절의 변화의 강한 힘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름 내내 내 머리 위에서 얼굴을 쳐들었던 잎들,  
이제는 묻힐 자리 찾느라 나를 스쳐가야만 하는가.  
여름 내내 숨결 사랑이며 위협하는 소리 들리더니  
이제는 땅에 떨어져나마져 죽음으로 데리고 가자는 것인가.

잎들은 저희들끼리 말하듯 내 마음의 도망자에게 말을 걸었고  
눈꺼풀을 때리고 입술은 건드리며 슬픔으로 초대 했었네.  
하지만 잎들이 떨어진다고나마져 져야하나.  
이제 일어나 또 한 해의 눈이나 밟고 다녀야겠다.

All summer long they were overhead, more lifted up than I.  
To come to their final place in earth they had to pass me by.  
All summer long I thought I heard them threatening under their breath.  
And when they came it seemed with a will to carry me with them to death.

They spoke to the fugitive in my heart as if it were leaf to leaf.  
They tapped at my eyelids and touched my lips with an invitation to grief.  
But it was no reason I had to go because they had to go.  
Now up, my knee, to keep on top of another year of snow.

(A Leaf-Treader, 5-12 )

이 시는 자연의 순환 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상과 여기에서 오는 죽음의 충

등을 저항과 탐색의 충동으로 대항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묘사 된다. 잎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외부적인 혼돈과 화자의 내적인 혼란이 맞서고 있다. 두려움을 내포하는 상징으로 의인화 되어있는 나뭇잎들은 여름동안 높은 곳에서 은근히 위협하더니 이제 늦가을에 접어들어 땅에 떨어지면서 화자와 같이 가자고 한다. 여름 내내 고자세였던 나뭇잎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가을 낙엽으로 퇴색되는 무서운 세력으로 의인화되어 있으며 죽음은 곧 낙엽이라는 메타포를 형성 한다. 얼굴을 스치며 떨어지는 낙엽은 마치 슬픔에의 초대와 같다. 인생을 살아감에 따라 인생에 배당된 시간이 점점 줄어서 인간의 아름다움, 젊음 같은 특성들은 쇠퇴하거나 사라져 가며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 삭막한 늦가을과 처량하게 떨어지는 활엽수들의 모습은 노쇠현상과 죽음을 극적으로 상징한다. 자칫하면 낙엽들과 함께 쓸려 갈 것 같은 분위기이지만 화자는 죽음을 거부하고 앞으로 틀림없이 눈이 내릴 것을 예상하면서 얼음을 열게 하는 차디찬 땅바닥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서서 겨울의 그 흰 눈을 걷겠다는 인생을 설계하는 강인함을 보인다.

또한, 프로스트의 많은 시들은 겨울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거버(Philips L. Gerber)의 말을 빌자면, “프로스트의 시들은 겨울과 그 겨울에 쏟아지는 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The poems could not exist without and its flood of white snow.)”<sup>11)</sup> 라고 언급한 것처럼, 그 겨울의 정경을 묘사함에 있어 눈(snow)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눈은 대지를 하얗게 덮어버리는 죽음과도 같은 모습이기도 하며 생의 정화의 기능을 가진 죽음 속에서의 생명력이 되기도 한다.

자연과 그 속의 인간을 대상으로 은유적 사고를 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극적 서정시로서 프로스트의 걸작 중의 하나가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이다. 나그네의 짙막한 독백을 통해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데, 시의 화자는 눈 내리는 밤에 숲의 밖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은 어둡고 화자는 그 어두움에 이상하게도 매혹된다.

11) Philips L. Gerber, ed.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Boston: G. K. Hall & Co., 1982), p. 166.

이게 누구의 숲인지 나는 알 것도 같다.  
하기야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  
눈 덮인 그의 숲을 보느라고  
내가 여기 멈춰서 있는 걸 그는 모를 것이다.

내 조랑말은 농가 하나 안 보이는 곳에  
일 년 중 가장 어두운 밤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이렇게 멈춰서 있는 걸 이상히 여길 것이다.

무슨 착오라도 일으킨 게 아니냐는 듯  
말은 목방울을 흔들며 본다.  
방울 소리 외에는 솔솔 부는 바람과  
숨처럼 부드럽게 눈 내리는 소리뿐.

숲은 어둡고 깊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잠자기 전에 몇십 리를 더 가야 한다.  
잠자기 전에 몇십 리를 더 가야 한다.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The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and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1-16 )

이 시에는 숲의 주인과 말이 등장 하는데, 숲의 주인은 자연을 소유대상으로 인식하는 현실적 인물이고, 길들여진 말은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가꿀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의 고향인 뉴잉글랜드의 겨울 시골풍경과 그 자연 속에 그림같이 그려지고 있는 고독한 나그네의 모습은, 인생의 보편적 진실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되풀이하는 시인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화자는 잠들기 전에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가야 하는 길은 일차적으로는 현실적인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생길'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한때의 경험으로 가슴 속에 아름다움을 묻어 둔 채, 자신에게 주어진 외로운 인생길을 성실히 걸어간 뒤에 비로소 평온하게 잠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이란 일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잠'이지만, 어둠과 상처되어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죽음'의 상징으로 인간의 넘을 수 없는 시간의 한계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 시는 일상의 체험을 아무런 과장 없이 자연스럽게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매우 커다란 시적 감동을 전해 준다. 그 감동은 바로 시인의 진실한 삶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시의 특징인 농촌 제재와 명상적 경향과 차분한 어조가 잘 나타나 있다. 어느 시골의 풍경과 고독한 산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인생에 대한 명상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비적 서정을 이루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눈 내리는 밤, 숲가에 멈춰 서니 조랑말조차 의아해 하는 듯 목방울을 흔들고, 술술 부는 바람 소리와 부드러운 숨처럼 내리는 눈 소리뿐이다. 적막한 숲가에 서서 화자가 생각하는 것은 어둡고, 깊고, 아름다운 숲으로 상징되는 인생과 잠으로 상징되는 죽음이 오기 전에 몇 십 리를 더 가야 한다는, 즉 남은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만약, 이 시가 제4연의 첫 행으로 끝나 버렸다면 그저 평범한 풍경화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마지막 3행“잠자기 전에 몇십 리를 더 가야 한다(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에서, 인생의 행로를 암시함으로써 자연은 화자에게 인생의 도덕률을 일깨워 주는 존재를 바탕으로 한 명상의 경지를 보여 준다.

이상과 같이 프로스트의 시들의 기본범주는 자연과 인간이다. 배경에 따라 그 앞의 나타나는 사물의 크기와 색조 등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비교와 대조를 통해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은 인간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자연으로서 존재하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특질을 갖고 있다. 그의 시속의 인간은 독립적인 자연의 거대함과 파괴성으로 인해 공포와 좌절, 왜곡된 인간성과 한계를 느낀다. 자연은 인간과는 독립된 존재다. 그것은 인간과는 무관한 자신의 방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 . . 인간과 외적 자연은 별도의 것이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연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결함을 가지고 있다.<sup>12)</sup> 결국, 그의 자연관은 낭만적 자연관에 바탕을 둔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것보다, 자연과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파악하고 자연을 냉철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조하는데, 이러한 자연관은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중요한 주제가 된다.

## 2) 자연의 양면성

라이넨(Lynen)은 프로스트의 시 사상의 가장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양면성(duality)을 언급한다. 그의 시들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관점의 양면성은 프로스트의 주요 사상적 특징이며, 그 기원은 자연에 대한 그의 관념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sup>13)</sup> 그가 말하는 이 양면성의 특징은 자연이라는 소재에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은 인간과 같이 존재하는 실제상황의 모습인 것이다. 인간상황으로서의 자연 속에서 프로스트는 항상 가치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인간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문제의 복잡성과 다중성을 진지하게 고민한다.<sup>14)</sup>

또한, 프로스트의 시 속의 자연은 일종의 수단과 도구로서 인간의 의도나 필요와는 무관하게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객체이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은 인간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며, 인간과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반

12) Gerber, p. 102.

13) John F. Lynen, *Frost as Modern Poet.,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177.

14) Potter, p. 70.

면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적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확실히, 자연은 자비로운 신으로 숭배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자연은 험악한 표정을 가진 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인간을 말살하기 위하여 내려치는 천둥번개를 가진 존재로 무섭게 묘사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두 가지 요소들이 공존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친구이기도하고 또한 적대자이기도 하다.<sup>15)</sup> 이러한 양면적인 자연을 환경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자연 생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자연은 냉혹한 모습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하고 무심하게 인간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연의 양면적 모습에서 인간은 시련을 겪고, 내적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며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여 수용하며, 한편으로는 인간 자신들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며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여 현실세계의 삶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그의 시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자연의 모습은 주로 친밀하고 목가적인 배경과 함께 제시 된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자연은 친밀하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는 전통적인 목가(pastoral)의 어조를 떠올리게 하며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러한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세계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스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스트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도록 유도한다.

「목장」(“The Pasture”)에서 프로스트는, 쉽게 시골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행위, 즉 “우물위의 낙엽을 걷어 내는 일”과 “어린송아지를 데려 오는 일”을 통해 자연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려 한다.<sup>16)</sup>

나는 샘물을 치러 가련다  
 나뭇잎들만 건져내면 된다  
 그리고 물이 맑아지는 것을 들여다 보련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너도 가자

15) Gerber, pp. 157-158.

16) Lynen,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p. 22.

나는 어린송아지를 데리러 가련다  
어미 옆에 서 있는 송아지는 아주 어리다  
어미가 혀로 핥으면 배틀거릴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너도 가자

I'm going out to clean the pasture spring;  
I'll only stop to rake the leaves away  
(And wait to watch the water clear, I may):  
I shan't be gone long. You come too.

I'm going out to fetch the little calf  
That's standing by the mother. It's so young,  
It totters when she licks it with her tongue.  
I shan't be gone long. You come too. (*The Pasture*)

프로스트는 이 시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희망과 기다림이라는 인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가 행하는 우물을 치우는 작업은 죽은 낙엽들로 더럽혀진 목장의 우물을 치우고 죽은 낙엽을 걸어내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우물은 풍요로운 곡식의 수확을 약속해 주는 것이요, 풍만한 애정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동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데, 여기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어린 송아지를 어미 소에게 직접 데려다 주는 것으로 수확의 기대처럼 송아지의 성장을 바라는 후일의 희망도 함께 있다. 프로스트는 어린 송아지처럼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사는 존재이지만 지상에서 화합과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이 아주 소중한 것으로 부각시켜 나타낸다.

「물 길러 가기」(“Going for Water”)에서 프로스트는 숲과 냇물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적 합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숲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달을  
맞이할 듯 달려간 우리

있도 없는 메마른 가지에는  
새도 없고 바람도 없었지.

하지만 숲속으로 들어간 우리,  
달빛을 가려 주는 요정처럼 멈췄다가  
달에게 들키면 웃음 웃으며  
새로이 숨을 곳을 찾으려 했지.

손으로 서로 서로 막으며  
눈으로 보기 전에 들으려 했지.  
우리 함께 숨을 죽으니  
귓전에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단 한곳에서 들려 오는듯한 그 가락,  
쨍그랑 떨어지는 가냘픈 소리  
방울지어 물 위를 떠다니는  
진주 같아라 은빛 풀잎 같아라.

.....

We ran as if to meet the moon  
That slowly dawned behind the trees,  
The barren boughs without the leaves,  
Without the birds, without the breeze.

But once within the wood, we paused  
Like gnomes that hid us from the moon,  
Ready to run to hiding new  
With laughter when she found us soon.

Each laid on other a staying hand  
To listen ere we dared to look,  
And in the hush we joined to make  
We heard, we knew we heard the brook.

A note as from a single place,  
A slender tinkling fall that made  
Now drops that floated on the pool  
Like pearls, and now a silver blade.

(*Going for Water*, 9-24 )

가뭄으로 샘이 말라서 물을 길러 나온 화자에게 주위의 숲, 들판과 냇물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시에서는 자연이 아름다운 정경에 도취되어 물을 길러가는 본래의 필요와 목적을 잠시 잊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에 화자가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겨운 숲의 뒤쪽에서 떠오르는 달처럼 조용하게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사랑과 그들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의 자연은 인간에게 우호적이며 따뜻한 태도를 취한다. 특히 달빛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 숲 속에서 달과 자연과 인간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자연과 인간은 조화를 이루며 일체가 된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는 인간에게 들려오는 물소리와, 달빛에 빛나는 물방울과 물줄기의 모습이 만나 공감각적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의 순간”<sup>17)</sup>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는 프로스트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자연의 물은 생명을 탄생 시키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 있으며, 혼탁해진 대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물(water)은 순수와 진실 그리고 자연의 생명력의 이미지로써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생명의 원천이며 새로운 생명을 기약해 주는 생명력의 상징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갖는 파괴성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물의 상징성은 혼탁해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정화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프로스트는 「지시」(“Directive”)에서 또한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삶의 고뇌를 잊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상실된 자아와 인간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시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구원이며 그들을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  
 개울가 고목 삼나무의  
 발등 속에 나는  
 깨진 잔 하나를 성배처럼 숨겨 놓고서

17) Reuben A. Brower, *The Poetry of Robert Frost: Constellations of Intention* (Oxford: Oxford UP, 1993), p. 181.

마법을 걸어 부저한 자들이 찾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 마가의 말대로 구원받지 못 하였다.  
(나는 그 잔을 아이들의 장난감집에서 몰래 가져 왔다.)  
여기서 당신의 물과 물 얻을 곳이 있으니  
이 물을 마시고 다시 온전함을 되찾아 혼란에 빠지지 마시오;

.....

I have kept hidden in the instep arch  
Of an old cedar at the waterside  
A broken drinking goblet like the Grail  
Under a spell so the wrong ones can't find it,  
So can't get saved, as Saint Mark says they mustn't.  
(I stole the goblet from the children's playhouse.)  
Here are your waters and your watering place.  
Drink and be whole again beyond confusion.

(Directive, 55-62)

도시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두 농촌을 버리고 떠났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린다, 잡초가 무성한 들판으로 변해버린 폐허의 마을을 20년 만에 화자가 찾는 여정이 이시의 구조이다. 이 화자는 마을 어귀 소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버린 깨어진 장난감을 발견 한다. 그것을 주워들고 갈증을 달래기 위해 들판을 흐르고 있는 개울로 향한다. 그리고 그 개울 가까이에 는 강의 근원지가 있다. 이 개울의 물은 바로 인간을 혼돈과 죄악에서 구원하는 성수의 메타포이다. 이 근원에 대한 메타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재생을 상징하는 물을 마심으로써 상실했던 자아의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위치가 자연의 힘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음<sup>18)</sup>을 시사하고 있는데 자아를 잃어버린 원인을 순수함의 상실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실세계보다 좀 더 단순한 과거로 후퇴하여 순수함을 찾음으로써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집의 잔으로 마치 성배로 성수를 마시듯이 지친 영혼을 온전하게 해 줄 개울물을 마시면 혼돈에서 벗어나 자아를 발견하는 길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물의 상징성은 혼탁해진 인간에게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정화의 기능으로 묘

18) Mark Richardson, *The Ordeal of Robert Frost* (Urban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7), p. 239.

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오도넬(W. G. O'Donnell,)은 “이 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힘의 진실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꼭 찾아야 한다. 그 산의 개울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19)</sup> 라고 말하고 있다.

위와는 반대로, 프로스트는 자연이란 인간의 원하는 대로 그 뜻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과 아무 상관 없는 객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때로는 인간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대립적인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 관계에서 인간은 자연에 대항하다가 끝내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인간에게 적대적이며 비우호적인 자연의 모습은 의인화되어 그려지는데 어두운 숲, 파도, 구름, 밤의 모습 등을 빌어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 오며 인간과멀의 목적으로 행사되는 물리적인 힘의 자연으로서 인간에게 다분히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어느 날 태평양 해안가에서」 (“Once by the Pacific”) 에서는 육지를 향하여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통하여 자연의 부정적 이미지와 파괴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서진 물결은 뿌옇게 소란을 피웠다.  
거대한 파도는 밀려오는 다른 파도를 돌아보며  
여지껏 물이 물에 가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볼까하고 생각하였다.  
낮은 구름이 하늘에 털 몽치 마냥 깔려있었다.  
번쩍이는 눈 위로 쓸려 내린 머리카락처럼  
벼랑이 해안을 받쳐주고  
대륙이 벼랑을 받쳐주고 있음이  
아무래도 찬 밤이 밤뿐 아니라 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광분함에 대비함이 좋을 것이다.  
「불을 끄라」는 신의 마지막 말이 있기 전에  
부서지는건 바닷물만이 아닐 것이다.

19) W. G. O'Donnell, "Robert Frost and New England: A Revaluation",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56.

The shattered water made a misty din.  
Great waves looked over others coming in,  
And thought of doing something to the shore  
That water never did to land before.  
The clouds were low and hairy in the skies,

Like locks blown forward in the gleam of eyes.  
You could not tell, and yet it looked as if  
The shore was luckily in being backed by cliff,  
The cliff in being backed by continent;  
It looked as if a night of dark intent  
Was coming, and not only a night, an age.  
Someone had better be prepared for rage.  
There would be more than ocean-water broken  
Before God's last Put out the Light was spoken.

(*Once by the Pacific*, 1-14 )

이 시에서 해변에 서있는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와 낮게 깔린 구름을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로 제시하며 다가오는 위협을 경계한다. 또한 자연의 모습은 음산하고 거센 기세로 육지를 삼켜 버릴 것 같은 파도와 구름으로 나타난다. 인간에게 큰 재앙이 닥칠 듯한 불길한 예감을 더해주는 배경으로서, 절벽에는 엄청난 파괴의 의도를 가진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치고 어두운 밤은 적의를 띤 모습으로 분위기를 더 음산하고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장면에서 프로스트가 그려내는 자연의 이미지와 의미에 대해 맥클라나한(MacClanahan)은, “자연은 무작위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혼란의 타자(他者)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의를 그 특징으로 하여 그려지고 있다.”<sup>20)</sup> 라고 언급한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자연 앞에 인간은 만족할 만한 답도 찾지 못하면서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자연으로 인해 서로간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다. 이 시에는 바다로 대표되는 악의에 찬 거대한 자연과 육지로 상징되는 인간세계의 대립과 갈등이 표현되고 있는데, 파도가 주는 긴장감은 자연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 라이넨의 말을 빌어보면 이

20) Thomas. MacClanahan, "Word I had No one But God," *Centennial Essays II* (Jackson: Mississippi UP, 1974), p. 49.

리한 자연의 부정적인 면과 인간이 갈등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프로스트의 시들 「하인들의 한 하인」, 「비둘기들의 마녀」 「설계」 「밤과 사귀기」 「어느 날 태평양 해안가에서」 등은 프로스트의 작품에서 트릴링이 프로스트를 공포 시인(terrifying poet)이라고 평가하는 요소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스트의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가법계 평가되어왔으나 트릴링은 아주 효과적이고 감동적으로 그 점을 강조함으로써 비평에 큰 헌신을 했다. 그러나 어조와 주제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시들이 프로스트의 시의 전부는 아니다. 그의 시는 광대한 스펙트럼에 까지 뻗어있다. 자연의 존재와 우주의 법칙에 대한 찬사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노동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보상에 대한 서정적이고 극적인 순간이 그 스펙트럼의 끝이 될 수 있다.<sup>21)</sup> 자연의 부정적인 모습 및 자연과 인간의 단절과 함께 프로스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삶에서의 극복 과정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자연의 공포와 함께 프로스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그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일에서 찾는 만족감 또는 성취감을 통해 그 공포를 극복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이 자연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공포와 자신의 인생을 동일시하면서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프로스트는 인간에게 적대적이며 비우호적인 자연의 강한 힘에 맞서 대항하다가 끝내는 인간 자신의 나약성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인간의 모습을 「어느 노인의 겨울밤」(“An Old Man's Winter Night”)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겨울밤의 이미지를 통하여 자연의 냉혹함을 겪고 있는 노동력이 상실된 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문 밖의 모든 것들이 텅 빈방의 유리창에  
 몇 개의 별 모양으로 얼어 붙어있는 얇은 서리를 통해  
 음험하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그 무서운 응시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은  
 눈 가까이로 기울인 손에 든 등불 때문이었다.

All out of doors looked darkly in at him

21) Alvan S. Ryan, “Frost and Emerson: Voice and Vision,”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ed. Phi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p. 136.

Through the thin frost, almost in separate stars,  
That gathers on the pane in empty rooms.  
What kept his eyes from giving back the gaze  
Was the lamp tilted near them in his hand.

(*An Old Man's Winter Night*, 1-5 )

인간이 어둠속의 자연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암시하는 첫 번째 행은 시 전체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자연의 음침한 의도를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다. 얇은 성에 낀 창과 주위를 밝히려고 노인이 켜 희미한 램프의 불빛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배가시켜 적막한 겨울밤과 어울리며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노인의 꺼져가는 생명력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인생의 끝 언저리를 살고 있는 노인과 삭막한 겨울밤의 이미지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프로스트는 냉정하게 노인은 노쇠하여 이제 그가 젊었을 때 하던 노동의 활동을 혼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마무리 되는 자신의 삶을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해명하고 있다.

늙은이는 혼자서는 집과  
농장과 들을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겨울밤을 보내는 일 뿐이다.

One aged man -- one man -- can't keep a house,  
A farm, a countryside, or if he can,  
It's thus he does it of a winter night.

(*An Old Man's Winter Night*, 26-28 )

자연이 갖는 강렬함과 왜소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 죽음에 맞서듯 혹독한 겨울밤을 지키고 있는 노인의 처지를 통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다. 인생은 노인처럼 점점 늙어 가지만 그것에 대한 자연은 아무런 도움도, 위안도 주지 않고 그저 방관자의 입장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겉으로는 인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연의 냉혹함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차갑고 어두운 겨울밤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나약해지고 외로운 노인을 통

하여 생의 종말에 대한 인간의 자기성찰을 보여주며 인간조건의 현실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외롭고 긴 어두운 밤이라는 냉혹한 상황에 외롭게 내던져진 노인의 두려움 같이 「폭풍의 공포」(“Storm Fear”)에서도 화자를 통해서 자연의 거대함과 파괴를 다룬다. 프로스트는 자연에서 느끼는 어둠속에 사로잡힌 인간의 공포와 불안감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바람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엄습 하고  
눈보라를 몰고 와  
아래층 동쪽창문에 부딪히며  
숨죽이며 속삭인다.  
짐승처럼,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와라!”  
나가지 않으려는 심적인 동요는 필요 없다.  
아, 없고말고!

.....

내 마음은 의심을 토로한다.  
내일 아침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 남아 있을까.  
도움 없이 우리자신을 구원 할 수 있을까.

When the wind works against us in the dark,  
And pelts with snow  
The lowest chamber window on the east,  
And whispers with a sort of stifled bark,  
The beast,  
'Come out! Come out!'--  
It costs no inward struggle not to go,  
Ah, no!

.....

And my heart owns a doubt  
Whether 'tis in us to arise with day  
And save ourselves unaided. (*Storm Fear*, 1-8,16-18)

이 시는 제목에서 보듯이 외부의 눈보라와 인간 내부의 공포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외딴 오두막집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마치 포효하는 짐승으로 의인화하여 묘사함으로써 자연을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활개치는 악의에

직면하면 시인은 깊은 불안감을 느낀다.<sup>22)</sup>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마치 울부짖는 짐승같이 위협적이고 두렵다. 5-6행에서 눈을 동반한 거센 바람 즉, 맹수에 비유된 폭풍이 문을 두드리며 집안에 있는 인간에게 나오라고 위협하며 소리치지만, 두려운 인간은 겁에 질려 본능적으로 "Ah, no!" 라고 순간적으로 대답하며 맞서지 못한다.

이 짧은 시행에서 프로스트는 혼란에 부딪힌 인간의 순간적인 항거를 보여주며, 그러한 결코 알잡아 볼 수 없는 항거는 인간이 아닌 상대방의 거센 도전 때문에 생긴 공포를 견디어 낼 수 있는 조그만 길을 열어준다.<sup>23)</sup> 그러면서도 자연의 파괴력으로 인해 화자는 잠을 잘 수도 없고 창고로 피할 수도 없으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무력감과 고립감만을 느끼며 상황을 견디어 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주인공의 불안한 마음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자연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힘 앞에서 작아지는 왜소함을 확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관심한듯하면서도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연에 대해, 프랜치(Roberts W. French)는 인간에게 악의를 지니고 파괴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연은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고, 인간을 그의 파괴로 유혹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은 재앙으로 이끄는 잔인하고, 음모를 꾸미고, 현혹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한 적극적인 악의에 직면하여, 시인은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낀다. 그러한 적수를 대항하여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sup>24)</sup>

자연의 파괴적인 속성 앞에 인간은 심하게 부적응을 느끼며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겪는다. 결국, 자연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힘을

22) Roberts W. French, "Robert Frost and the Darkness of Nature," *Critical Essays* (Jackson: Univ. Press of Mississippi, 1974), p. 156.

23) Donald J. Greiner, "The Indispensable Robert Frost",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ed. Philips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p. 227.

24) French, p. 56.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힘 앞에서 작아지는 왜소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태평양 해안가에서」(“Once by the Pacific”)와 「폭풍의 공포」(“Storm Fear”)에 나타난 자연의 힘을, 포터(Potter)는 무관심하고 악의에 찬 우주로 인식 한다. “이 시는 무관심한 우주 뿐 만아니라 잔인 하리 만큼 적의에 찬 우주 역시 연상 시키고 있다. 이 시에는 그 ‘악의’에 대한 정당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의의 우주를 우리 인간과 같은 희생양들은 이해 할 수가 없다.”<sup>25)</sup>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적의에 찬 폭력은 우주의 섭리처럼 인간의 이해 밖에 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적의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절대 공포를 상기시키고 유발시킨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자연은 인간과의 대립적인 관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도 있다. 자연에 대해 이러한 양면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승화시키는데 주된 관심을 보인다. 그는 이 시에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에 취해있는 일보다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연, 특히 숲이 주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과 자연의 단절을 나타내는 시로는 「들어오시오」(“Come In”)가 있다. 프로스트는 자연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 숲의 어둠을 이용한다. 숲 속의 어둠은 인간이 외적 세상으로서 인간을 위협하고, 죽음과 종말의 장면을 연상 시킨다. 이러한 숲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이 시에서 프로스트는 티티새(지빠귀새)를 등장시킨다.<sup>26)</sup>

숲가에 다다르니  
쉬—! 티티새 우는 소리  
밝은 황혼이지만  
숲 속은 어두운 밤.  
새는 날개를 퍼덕이면서도  
잠자리를 옮길 수 없네  
숲은 너무 어두웠지만

25) James L. Potter, *Robert Frost Handbook*, p. 50.

26) Reuben A. Brower, *The Poetry of Robert Frost: Constellations of Intention*, p. 33.

노래는 부를 수 있었습니다.  
 ....  
 치솟은 나무숲의 어둠 속으로  
 티티새의 노래가 퍼져갑니다.  
 어둠과 슬픔 찾아  
 들어오라는 듯이 —  
 하지만 별을 구경하러 나온 몸이니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으렵니다.  
 그런 청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설사 부탁을 한다 해도 안 들어가렵니다.

As I came to the edge of the woods,  
 Thrush music—hark!  
 Now if it was dusk outside,  
 Inside it was dark.  
 Too dark in the woods for a bird  
 By sleight of wing  
 To better its perch for the night,  
 Though it still could sing.  
 ....  
 Far in the pillared dark  
 Thrush music went—  
 Almost like a call to come in  
 To the dark and lament.  
 But no, I was out for stars:  
 I would not come in.  
 I meant not even if asked,  
 And I hadn't been. (Come In, 1-8,13-20 )

이 시에서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숲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티티새의 노래가 들려오는 어두운 숲의 유혹을 받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어두운 숲속으로 울려 퍼지는 티티새의 노래는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티티새의 울음소리는 숲이라는 어둠의 세계로 초대하는 유혹을 의미한다. 어둠속에 들려오는 새소리는 현실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포괄적인 자연의 상징인 것이다. 「폭풍의 공포」(“Storm Fear”)의 눈보라가 인간에게 집밖으로 "나오라(come out)"는 말로 유혹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의인화 된 어둠의 숲이 티티새의 목소리를

빌어 “들어오라(come in)”는 말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다. 화자는 숲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가까이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 숲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적막하기도 하고 티티새가 잠자리도 옮길 수 없을 만큼 캄캄하기만 하다. 들리는 새 소리며 숲의 나무 등의 자연은 어둡고도 압도하는 듯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어둠의 숲과 자신의 현실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는 숲과 떨어진 채, 별을 보기 위해 숲가로 나온 처음의 목적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본연의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유혹하는 어두워진 숲과 대비되는 저항하는 밝은 별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마지막 이성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숲의 어둠과 숲의 깊이는 휴식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데, 이것이 주는 이미지는 숲이 인간에게 결코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의미 한다. 반면에 영원불변성을 지닌 별은 어두운 숲에 대한 해독제의 기능으로서 혼란한 인간의 삶에서 올바른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상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거버(Gerb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프로스트에 의해서 영원불변함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상징들 중에서, 그의 별에 대한 믿음은 두드러진다. 별은 그의 시에서 관심의 중심으로든지 아니면 배경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한다.<sup>27)</sup>

또한 4연에서 보면, 어둠속 멀리 들려오는 새의 소리는 삶의 진리가 담긴 듯 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고, 어둠은 인간으로서 자연의 진리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할 수 없어, 삶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유머러스한 어조로 현실에 머무를 것을 이야기 한다. 화자는 어두운 숲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과 두려움으로 망설임과 동시에 현실의 삶에 강한 긍정을 하면서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밝은 별의 세계로 향한다. ‘들어오라는 청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강하게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측면에서 워렌(Robert Penn Warren)은 “새는 어디까지나 새의 처지에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 어둠속

27) Gerber, *Robert Frost*, P.164.

에서 그의 실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은 어두워질수록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야 한다.”<sup>28)</sup>고 말한다. 프로스트는 처음에는 숲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점차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프로스트가 시에서 인생의 여러 단면의 실제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면서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인식하려는 이원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와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호적인 면과 인간에게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면으로 양분되어 나타난다.

이 시에서 시인은 확실한 경계선으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틈을 보여준다.……그가 제시하는 정경은 확실히 아름답지도 않고 활기찬 것도 아니다. 자연은 아주 인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인간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를 표현하는 대조되는 현실에 대한 직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준다.<sup>29)</sup> 물론 인간과 자연과의 괴리는 존재한다. 프로스트는 자신의 시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찾음으로써 그 괴리감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고 잘 이해함으로써 자연을 알게 되고 친숙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은 자연과의 괴리감을 없애고 상호 보완적인 대등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프로스트는 인간의 시선으로 가능한 멀리까지 바라보고 친숙하게 지내며 숲과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의 시에서 시인은 어두운 숲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어두운 숲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고서 다시 되돌아 올 만큼 충분히 깊고 멀지 않다는 것이다.<sup>30)</sup> 프로스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숲의 모습 하나는 눈에 덮여 있거나 어둠에 싸여있는 숲이다. 이 숲들은 아름답고 매력을 지니는 한편 인간으로 하여금 숲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삶의 무상과 허무, 자아상실감을 느끼게도 하고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며, 인간이 선뜻 들어가기에 두려운 곳이기도 하다. 또한 숲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를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 인간사회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28) Robert Penn Warren, "The Themes of Robert Frost," *The Writer and His Craft: The Hopwood Lectures, 1932-195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pp. 225-226.

29) Lynen, p. 162.

30) Gerber. p. 170.

한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숲은 대개 어둡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지만 결국 사람과 쉽게 친해지거나 동화될 수 없는 대상으로 남는다.

프로스트가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주된 관심은 인간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 그가 시의 소재로 주로 선택한 것은 자연이지만, 그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대비시킴으로써 인생의 해명을 시도한다. 그리고 프로스트의 시에 있어서 그러한 초점은 자연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괴리를 해소시키려는 인간의 끈질긴 인내와 용기 또는 투쟁정신을 보여주고자 한 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노동의 의미

### 1) 노동의 양면성

프로스트는 작품 속에서 인간 삶의 현실 모형을 노동으로 본다. 그는 노동을 메타포로 하여 자연을 배경으로 한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을 시도하면서 생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자연을 양면성이 있는 인생의 장으로 파악한다. 자연이 지니는 양면성 자체가 인간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자연의 임의적 변화가 바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자연 또는 현실에 맞서는 인간은 행위로서 반응하게 되는데, 프로스트에 의하면 이것이 노동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양면적인 자연 속에서 노동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노동을 노래한 그의 시들의 공통점은, 농촌생활을 배경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활동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들의 내용은 자연과 현실에 대한 수용과 저항 또는 도전에 관한 것으로, 노동의 메타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노동을 통해 하나가 되고, 동시에 부정적 자연과의 대립과 갈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외와 단절의 현상을 노동으로 극복함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

프로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며 생활 속에서 노동을 체험하였다. 그가 직접 체험한 노동은 그의 시에 사실적으로 드러나는데 그의 시에서

노동은 인간에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된다. 하나는 고독과 소외를 겪고 물질문명에 희생되고 고립된 인간 군상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즉, 임금에 대한 필요로서 끈질기게 집착하는 숙명적인 노동이며, 다른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꿈으로서 일 자체가 즐거운 노동이다. 프로스트에게 노동의 즐거움이란 사실 노동의 과정 속에 있는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여 얻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이 지상의 삶을 통해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창조적 의미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프로스트는 농부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독을 넘어서 노동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지상에서도 자연과 노동을 통하여 인간 삶의 현실을 인식하고 노동을 통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며 인간존재의 가치를 알아가는 삶의 본연의 자세를 통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프로스트는 인간이 노동의 참다운 의미를 인식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그 의미를 승화시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은 인간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며 때로는 외롭게 할지라도 결국은 풍요와 감사와 축복을 준다는 것을 시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풀베기」(“Mowing”)는 농촌생활을 배경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의 건전한 노동의 메타포를 통하여 삶의 본질과 인생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소네트(14행시)로서 노동의 심미적 가치를 보여준다.

숲가에서 들리는 소리는 단 하나  
 그것은 땅위에 속삭이는 나의 긴 낫 소리였다.  
 그게 무엇을 속삭였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  
 실은 어쩔수 없는 애착에 못 이겨  
 잎끝이 연한 난초꽃도 섞여있는  
 수풀 무성한 숲지를 손질 하노라면  
 때론 번쩍이는 초록뱀도 질겁해 달아나는 것이다.  
 사실(속삭임)은 노동만이 아는 가장 사랑스럽고 달콤한 꿈  
 하여 나의 긴 낫은 속삭이며 풀을 베어 나갔다.

There was a sound beside the wood but one,  
 And that was my long scythe whispering to the ground,

What was it it whispered I know not well myself;  
.....

To the earnest love that laid the swale in rows,  
Not without feeble-pointed spikes of flowers  
(Pale orchises), and scared a bright green snake.  
The fact is the sweetest dream that labor knows.  
My long scythe whispered and left the hay to make.

(*Mowing* 1-3, 9-14)

프로스트는 농부생활의 체험으로부터 터득한 인생과 노동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노래해 주고 있다. 그가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를 쓴”<sup>31)</sup> 것으로 보아 스스로 건초를 만드는 일에서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시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묵묵히 풀을 베면서도 ‘낮’이 내는 소리에 몰두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낮과 동일시되고 있다. 힘겨운 노동은 낮이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쌓여가는 건초를 보며 화자의 명상을 통해 달콤한 꿈으로 녹아난다. 여기서 ‘긴 낮의 속삭임’은 단지 한가한 시간의 선물의 꿈이 아니라 노동자가 이 도구를 가지고 힘든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실의 힘으로써 가장 달콤한 꿈이라는 것이다. 이는 ‘낮’이라는 도구로 은유화 된 노동과 인간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노동행위를 하는 인간이 즐거움과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자연에서 느끼는 인간의 즐거움은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시와 관련하여 운터메이어(Untermeyer)는 “일하는 자로서 시인은 자신과 낮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도구가 일을 수행할 때, 그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가져다준다”<sup>32)</sup> 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는 이 시의 13행처럼 노동을 통한 기쁨의 발견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큰 명제인 삶과 노동을 대비시킴으로서 결말에 이르러는 기쁨의 감동 속으로 잠기게 한다. 즉 노동은 인생을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며, 일(노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며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더 나아가 프로스트는 인생과 노동을 더욱 귀

31) Newman. p. 22.

32) Louis Untermeyer, *The Pocket Book of Robert Frost's Poems* (New York: Henry Holt & Co., 1946), p. 91.

중한 가치로서 사랑하게 되고,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는 즐거움 속에 풀 베는 소리가 땅위에서, 풀과 낫이, 사람과 노동이 서로 속삭이는 아름다운 노래로 인식하여 음악적 승화로 형상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즐거움이 잘 나타나 있는 시로 「사과 따기를 마친 후에」(“After Apple-Picking”)가 있는데 이 시는 농촌생활을 배경으로 노동의 즐거움과 인생의 의의를 다루고 있다. 사과라는 노동의 매개체를 통한 수확의 기쁨과 이에 따른 평화와 안정을 느끼면서 다음을 위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해명을 구하고자 한 시이다. 늦가을에 사과 따기를 거의 마친 후 휴식의 계절인 겨울을 맞이한 농부가 피로 속에서나마 만족스러움과 축복의 기분에 쌓여 현실세계의 고된 노동을 잊고 사과 따기를 회상한다. 프로스트는 "인간이 현세에서 행하는 성실한 삶이 내세에 가서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신념으로, 지상에서의 인간의 허무를 극복 하려는 의지를 이 시를 통해 보여준다.

내 긴 사닥다리의 두 끝은 여전히 나무 사이로  
하늘을 향해 뻗어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채우지 않은  
통 하나가 있고 어느 가지에는 아직 따지 않은  
사과 두 세 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과 따는 것을 끝냈다.

My long two-pointed ladder's sticking through a tree  
Toward heaven still,  
And there's a barrel that I didn't fill  
Beside it, and there may be two or three  
Apples I didn't pick upon some bough.  
But I am done with apple-picking now.

(After Apple-Picking, 1-6 )

위에서 사과를 따기 위해 세워놓은 도구로서, 천국을 향하는 계단의 의미로서의 사다리, 아직 채워지지 않은 통,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한두 개의 사과 등은 인간의 일이 늘 끝이 없는 미완성의 연속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노동 행위를 통한 기쁨과 성취의 꿈이 나타나 있다. 늦가을 사과 따기를 마치고 휴식의 초겨울을 맞이한 농부가 피로 속에서도 수확의 기쁨으로 사과 따기의 구체적인

노동 행위를 회상한다. 그 속에는 과도한 노동으로 잠조차 못잘 만큼 피로감이 있는 반면, 즐거움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서 그 감사의 기분은 고된 노동을 하고 난 뒤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된 감정이며, 이 감정은 자연 속에서 얻은 인간의 소득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육체적, 물질적 즐거움과 감사라기보다 경험의 반추, 또는 정신적인 생활의 이상이 추구되어 진다.

겨울잠의 정수는 밤에 사과향기에  
깃들여 있다. 나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

Essence of winter sleep is on the night,  
The scent of apples: I am drowsing off. (7-8)

육체적 피로로 졸고 있지만 그 졸음은 “겨울잠의 정기(Essence of winter sleep)”인 “사과향기(the scent of apples)”로 어우러진 즐거움에 도취된 졸음이다. 인간 활동이 완전히 끝나고 자연의 숨소리만 들리는 근원적인 상태의 겨울잠 속으로 빠져드는 농부의 코에는 고된 노동 뒤에 풍겨오는 쾌락의 사과 향기가 가득하다. 여기서 겨울잠은 죽음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영원한 세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사과 따기를 마친 농촌은 농부의 마음처럼 풍요와 평화와 감사와 축복의 분위기가 감돈다.

또한, 프로스트는 이러한 꿈과 연결해서 인간의 잠과 들쥐의 본능적인 잠을 아래의 시에서 언급하면서 인간의 잠은 노동으로부터 휴식, 육체로부터의 해방, 더 나아가 죽음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 잠이 어떤 잠이든 간에 그 잠을 무엇이 괴롭힐지를.  
들쥐가 아직 땅속으로 가지 않고 있었다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묘사하는 나에게 오고 있는 이 잠이  
그의 긴 잠과 같은 것인지 단지 인간의 어떤 잠일 뿐인지를.

One can see what will trouble  
This sleep of mine, whatever sleep it is.  
Were he not gone,

The woodchuck could say whether it's like his  
Long sleep, as I describe its coming on,  
Or just some human sleep. (37-42)

인간의 잠은 들쥐와는 달리 성취에 대한 기쁨과 보람의 연장을 포함하는 휴식인 것이다. 들쥐의 오랜 잠은 봄의 도래와 함께 다시 깨어남이 예정되어 있지만 인간의 오랜 잠은 곧 죽음인 것이다. 과도한 노동이 불러온 결과인 힘겨운 잠을 들쥐의 시선을 통해 비꼬고 있으며 지나친 노동의 결과 인간과 자연은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고 자아는 자연에서 더욱 분리되고 소외된 상황을 맞이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한 잠을 자지만 ‘꿈’을 꾸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임을 사과 따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불가능한 꿈을 지니고 인간은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어떤 구원도 보답도 얻지 못한다. 이러한 고뇌의 상황으로 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sup>33)</sup> 프로스트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자연과 노동이 상징하는 바를 인간에 적용시켜 인생의 의미를 시에 담았다. 지상은 인간 삶의 현장이고 이 지상에서의 삶의 사랑은 노동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진정한 노동의 기쁨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프로스트의 시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노동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프로스트의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그의 인터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시인으로서 시 분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도 좋아한다. 즉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며 또한 고독한 정신적인 노동자 이전에 항상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sup>34)</sup>고 언급 한다. 프로스트에게 있어서 시를 짓는 것은 노동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이고,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나 삶의 문제에 대해 깊은 사색이나 명상을 하는 활동도, 정신적 노동으로서 각고의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고 볼 때, 프로스트에게 있어서 일을 하는 것과 시를 창작하는

33) Gerber, p. 146.

34) Edward Connery Lathem, *Interview with Robert Frost* (New York: Jeffrey Norton Publishers Inc., 1997), p. 285.

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시를 쓰는 일은 시인의 정화된 정서에 의한 예술적 창조이며, 이와 같은 창조의 행위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삶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뚜렷한 실체로 파악하고 노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위의 시를 통해 인간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을 할 때 노동의 결실과 합쳐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 인간은 고독한 상황을 극복하고 활기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일꾼의 죽음」("The Death of the Hired Man")은 생업으로서의 인간의 숙명적인 노동을 보여주며, 노동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젊었을 때 농사일로 바쁜 여름철 어떤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주인을 떠났던 늙은 사일러스(Silas)가 아무 쓸모도 없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집에 다시 나타난 사건에 대해, 워렌(Warren)과 메리(Mary)부부간에 말다툼을 벌이는 사건이다. 이 시에서는 노동이라는 특기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무능하고 이미 늙어버린 사일러스가, 노동력을 상실한 노년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외롭게 죽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 그는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반문했다.

“그럼요. 집이죠.

집이 따로 있나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물론 그와 우리 사이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산 속에서 길을 잃고 지쳐서

우리 집에 찾아든

낯선 개와도 같이.”

“아무 때나 돌아가면 별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 곳이

집이란 말이지?”

“집이란 곳은 원래 그런 곳 아니에요?

돌아갈 자격을 따지지 않는 곳이니까요.”

“Home,” he mocked gently.

“Yes, what else but home?

It all depends on what you mean by home.  
Of course he's nothing to us, any more  
Than was the hound that came a stranger to us  
Out of the woods, worn out upon the trail.”

“Home is the place where, when you have to go there,  
They have to take you in.”

“I shouldn't have called it  
Something you somehow haven't to deserve.”

(*The Death of the Hired Man*, 116-125)

시의 끝에서 사일러스가 죽음으로써 남편 워렌의 태도는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나 그의 사일러스에 대한 태도는 시종일관 냉정하여 아내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그린다. 하지만 프로스트는 단지 갈등 그 자체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시의 끝에 비록 사일러스는 죽었지만 워렌은 인생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해져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당성만을 강조하던 워렌의 경직된 인생관이 따스한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메리에 의하여 점점 부드러워져 그의 인생관이 영향을 받고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노동의 고용 수단으로서 보는 워렌과 인간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부인 메리를 통하여 노동의 행위에서 대가가 물질이 아닌 사랑과 보람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 생계를 이어나간 노동의 과정에도 고용주나 고용인 사이에서 즐거움과 사랑의 가치적 평가가 함께 해야 함을 사일러스를 통하여 언급하였다.

「꺼져라, 꺼져라—」("Out, Out—")는 어린 소년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생계유지를 위한 위험한 노동을 하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소재로 과도한 노동의 양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도처에 내재해 있으며, 어린 소년의 비극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대비 되면서 분위기가 시의 전반부와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글쎄. 허나 그 손은 이미 사라졌는걸!

의사는 그를 에테르의 어둠 속으로 보냈다.  
 그는 누워서 거칠게 숨을 내뿜었다.  
 그러자 그의 맥을 짚던 이가 놀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가슴에 귀를 댔다.  
 작아지고—희미해지고—끊어졌다. 그만이었다.  
 그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각자 제 불 일로 돌아갔다.

So. But the hand was gone already.  
 The doctor put him in the dark of ether.  
 He lay and puffed his lips out with his breath.  
 And then—the watcher at his pulse took fright.  
 No one believed. They listened at his heart.  
 Little—less—nothing!—and that ended it.  
 No more to build on there. And they, since they  
 Were not the one dead, turned to their affairs. (*Out, Out—*, 27-34)

저 멀리 산 아래는 이미 해가 지고 누나의 저녁식사 알림 후에도 톱이 웅웅 대는 불길한 징조를 보인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른 몫의 고된 노동을 하던 어린 소년은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은 잘려나가고, 어린 소년의 죽음에 작가는 이유를 캐지 않는다. 더욱 안타깝고 슬픈 것은, 소년이 숨을 거두자마자 조금 전까지도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일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는 매정함이다. 이것이 삶의 현실이며 인간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이웃의 무관심과 그 냉정함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생계유지를 위한 어른 몫의 노동을 하다 죽어가는 소년의 비극은, 가족과 이웃사람들 역시 그 소년의 죽음을 뒤로하고 생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이다. 또한 노동이 갖는 의미가 인간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휴식과 즐거운 마음이 동반되지 않을 때와 상호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알 수 없는 어떤 불길한 사고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지나치게 과격함 노동에 자신을 내맡긴 결과는 과멸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오며, 생계를 위한 노동이 가져온 비극은 인간소외라는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인간사이의 단절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생명파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콕스(Sidney Cox)는 이처럼 주변에 비극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것을 곧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항상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잃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한다.<sup>35)</sup> 소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정이 역력하게 흐르면서도 그 너머의 인생을 바라보는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보여주듯이 통렬함이 느껴지는 말로 냉혹한 삶을 직시한다. 하지만 산업화의 메커니즘에 종속된 모습 속에 과도한 노동으로 아이의 비참한 죽음을 가져온 현실에 대한 분노는 사회성을 떠나기 전에 인생에 대한 체념으로 가라앉는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같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삶속에 죽음은 이미 내재해 있으므로 죽음을 맞을 때까지 인간의 의무인 노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숫돌」(“The Grindstone”)에서는 생계를 위한 필요의 노동과 그로 인한 인간소외의 비극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단지 기억나는 일은 그 옛날  
어느 날인가 이놈을 하루 종일 돌렸었다는 것이다.  
누가 그 위에 올라타 힘을 누르고  
그와 내가 낮을 갈았다는 것이다.

우선 한번 돌리면서  
물을 붓는다(아마 그것은 눈물이었으리라)  
.....  
그는 힘을 주어 무게를 더하였고  
나는 느려졌다-갑자기 느려졌다  
갑자기 나타난 열차역에 도착한 것처럼.  
나는 필사적으로 손과 손을 바꿔가며 돌렸다.  
.....  
숫돌은 발길질을 하였다.  
증오에 대한 증오로 나에게 답하듯  
.....

Except that I remember how of old  
One summer day, all day I drove it hard,

35) Sidney Cox, *A Swinger of Birches: A Portrait of Robert Frost* (New York: New York UP, 1957), p. 36.

And someone mounted on it rode it hard  
And he and I between us ground a blade.

I gave it the preliminary spin  
And poured on water (tears it might have been);  
.....

He turned on will-power to increase the load  
And slow me down -- and I abruptly slowed,  
Like coming to a sudden railroad station.  
I changed from hand to hand in desperation.  
.....

Spheroid that kicked and struggled in its gait,  
Appearing to return me hate for hate;

(*The Grindstone*, 18-27,31-34, 40-41 )

화자는 바퀴와 네 개의 다리가 달려있는 숫돌이 사과나무 아래에 서있는 것을 보고 어린 시절에 하루 종일 바퀴를 돌리며 낫을 갈던 노동의 과정을 회상한다. 낫을 더욱 예리하게 세우려는 어른의 힘에 따라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계속 바퀴를 돌려야 하는 고통에 어린 시절 증오심을 불태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숫돌을 보는 순간 화자는 어른들과의 힘의 대결에서 일했던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협력과, 노동의 주종관계와 노동 속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명상에 잠겨 여러 질문을 던진다. 공동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일방적으로 일이 처리됨에 문제를 제기 한다.

일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일의 진행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프로스트는 의문을 던짐으로서 노동에 관계된 사람들 즉, 우리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노동실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노동에 있어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갈등이 동반됨을 시사하고 있다.

우스꽝스런 안경 눈으로 한번 점검해 보더니  
한번 더 갈아야겠다는 결정을 그가 내렸을 땀  
나는 소리 지를 뻔했다.  
너무 많이 갈아 버린 거 아닌가요?  
.....  
당신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거든요.

And viewed it over his glasses funny-eyed,  
 Only disinterestedly to decide  
 It needed a turn more, I could have cried  
 Wasn't there a danger of a turn too much?  
 Mightn't we make it worse instead of better?  
 . . . . .  
 (I'd)Be satisfied if he'd be satisfied.

( 70-74, 77)

어른이 칼을 한번 더 갈아야겠다는 독단을 내리자 화자는 어른의 말에 반감을 갖는다. 즉 노동의 행위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어른의 행위에 대해 프로스트는 노동을 생계를 위해 견디어 내야하는 일방적인 노동의 형태로 보고 실리추구만 강요할 경우 구성원 간에 신뢰가 단절되며 일을 망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2) 노동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노동을 노래한 프로스트 시들의 공통점은 농촌생활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인간의 근본적 활동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노동의 메타포를 통해 자연과 현실에 대한 수용과 저항 또는 도전에 관한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의 시 속의 인물들은 노동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대립과 갈등을 함으로써 소외와 단절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노동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노동을 통해 하나가 되고, 동시에 부정적 자연과의 대립과 갈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외와 단절의 현상을 노동으로 극복함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 결국 그는 노동이라는 고달프고 힘들기도 한 인간행위를 삶의 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진실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삶의 의의를 자연과 더불어 바로 지상의 노동과 성취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시가 「꽃다발」(“The Tuft of Flowers”)이다. 이시는 농부인 화자가 외로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삶이라는 독백으로 시작되고 있다. 프로스트는 노동의

양면성을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개인과 서로간의 화합하여 함께 일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해뜨기 이슬 속에서 풀을 베어 나갔을  
그 사람을 따라서 풀을 뒤집어 갔다.

.....

그러나 그는 그의 길을 가버렸고  
그가 혼자였던 것처럼 나도 혼자였다.  
모든 사람은 혼자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함께 일하든 따로 일하든

.....

그러자 나는 주위에 깨어나는 새 소리를 듣게 되고  
땅에 속삭이는 그 사람의 긴 낫 소리도 듣게 되고  
나와 비슷한 그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부터의 일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I went to turn the grass once after one  
Who mowed it in the dew before the sun.

.....

But he had gone his way, the grass all mown,  
And I must be, as he had been—lone,  
'As all must be,' I said within my heart,  
'Whether they work together or apart.'

.....

That made me hear the wakening birds around,  
And hear his long scythe whispering to the ground,  
And feel a spirit kindred to my own;  
So that henceforth I worked no more alone;

(*The Tuft of Flowers*, 1-2, 7-10, 29-34)

이 시는 두 장면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하나는 화자가 노동의 변함없는 조건으로 고독과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의 화자가 씩씩히 인정하는 장면이며, 또 하나는 나비와 꽃 덩굴의 메타포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고 결국에는 영혼의 교감과 동료의식(brotherly)을 통해 인간의 고독을 극복한다는 장면이다. 즉 이 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배려나 심미적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헤아리게 하고, 인간이 노동을 통해 고독한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고 노동에 의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통한 교감과 화합을 추구한다.

뉴먼(Lea Newman)은 프로스트가 그의 시의 주제를 밝히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 시의 주제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몇 차례 언급한바 있다고 말한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이죠.” 라고 그는 설명했다. 농부로서의 고독한 삶과 관련하여 볼 때, 그는 사람들로 부터 떠났다. 그러나 「꽃다발」에서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로 돌아왔다.<sup>36)</sup>

함께 일하는 것과 홀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그는 고독한 농부로서는 혼자였지만 이 시에서 ‘혼자’(8행) 라는 시어를 ‘더 이상은 혼자의 일이 아니’(36행)였다고, 또 ‘함께’(41행)로 바꾸어 반복함으로써 시 속에서 말로써 함께 하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를 통해 실제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 즉 시를 짓는 일로서 사람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화자의 독백을 통해 노동은 쓸쓸한 외로움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비의 출현으로 인간과 인간의 거리를 좁혀 화합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말한다. 더 나아가 서로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교감을 나누며 하는 노동은 고독한 인간조건을 극복하게 하며 인간의 화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시는 기쁨에서 시작하여 지혜로 끝난다”<sup>37)</sup> 라고 한 프로스트의 시론에 가장 부합되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흙 더미의 두 뜨내기 일꾼」(“Two Tramps in Mud Time”)에서도 노동의 메타포를 통해 바라본 삶의 태도는 인간 고뇌의 극복을 보여주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시에서는 생명의 원천인 물과 생명을 위협하는 서리가 대조되며 ‘즐거움(도락)’과 ‘필요(생업)’라는 노동의 양면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노동의 양면성인 즐거움과 필요성의 메타포를 통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상반된 입장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의 문제를

36) Lea Newman, Robert Frost: *The People, Places, and Stories behind His New England Poetry* (Vermont: The New England Press, 2000), p. 13.

37) Lynen, p. 140-161.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준다.

진흙길로부터 두 이방인이 다가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나를 보고는  
그들 중 하나가 “세계 치쇼!” 라고 활달하게 외쳐서  
내가 내 표적을 놓치도록 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왜 그가 뒤에 처지고  
또 사람을 먼저가게 했나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의 생각을,  
그는 나의 일을 샅을 받고 하길 원하였다.

Out of the mud two strangers came  
And caught me splitting wood in the yard.  
And one of them put me off my aim  
By hailing cheerily Hit them hard!  
I knew pretty well why he dropped behind  
And let the other go on a way.  
I knew pretty well what he had in mind;  
He wanted to take my job for pay.

(*Two Tramps in Mud Time*, 1-8)

진흙 길에서 온 두 명의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트랙에서 실한 밤나무 토막을 패며 3월 중순의 상쾌함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를 보고, 그중 한 사람이 ‘세계 치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화자는 그만 헛치고 만다. 화자는 나무꾼들이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돈을 바라며 그의 노동을 양보해 달라는 뜻을 알게 된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화자가 처한 갈등은 계절의 묘사를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결국 생계를 위한 노동을 우선권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양보한다.

다음 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즐기는 장작 패는 노동을 내어 주고 싶지 않음을 은근히 말하며 노동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내가 일을 가장 즐기는 때에  
두 사람이 와 이런 요구를 하니  
내가 그 일을 더 좋아함은 당연할밖에.  
내가 전에는 못 느꼈다고 당신은 생각하리.

높이 쳐든 도끼 대가리의 무게를  
활짝 펴 땅바닥에 짝 붙인 다리를.  
봄의 열기 속에 매끈하고 축축한  
부드럽게 흔들리는 근육의 활기를.

The time when most I loved my task  
These two must make me love it more  
By coming with what they came to ask.  
You'd think I never had felt before  
The weight of an ax-head poised aloft,  
The grip on earth of outspread feet.  
The lift of muscles rocking soft  
And smooth and moist in vernal heat. (41-48)

봄의 열기 속에서 장작 패는 일을 즐기고 있을 때 뜨내기 일꾼들이 자기들에게 장작 패는 일을 넘길 것을 암시하자 하는 일이 더욱 즐거워진다. 도끼를 휘두르는 모습과 부드럽게 흔들리는 근육의 모습에서 화자가 가지는 노동의 즐거움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꾼들은 도끼 다루는 법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이므로, 화자는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장작 패는 일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자는 남의 돈벌이 일을 마지막 연에서 좋아서 하는 일과 필요로 하는 일이 공존하는 노동의 양면성에서 생활의 수단이 되는 노동의 우선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동의 참다운 의미를 생각한다. 프로스트는 화자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노동은 도락과 사랑이며 일꾼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노동은 필요임을 말하며 자발적인 도락으로서의 노동과 생계를 위한 필요의 노동이라는 양면적인 속성이 함께 했을 때 노동의 이상적인 조건이 성립됨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로스트는 화자를 통해서 노동이 갖는 의미로써 생업과 취미를 합일시키는 것을 주장한다. 화자는 좋아서 하는 일과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먹고사는 일의 목적에 우선권을 두겠다는 현실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나의 권리는 즐거움이고 그들의 권리는 필요인 것이다  
이두가지 권리가 함께 한다면  
그들의 것이 우선함을 인정한다.

양자의 분리를 인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 삶의 목표는 취미와 직업을  
내 두 눈이 합쳐져 한 시력을 이루듯이.  
결합시키는 일이다.  
즐기는 일과 필요가 하나가 될 때만,  
일이 대단한 이해관계를 위한 놀이일 때만,  
그 행위는 진정 행해진다.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

My right might be love but theirs was need.  
And where the two exist in twain  
Theirs was the better right--agreed.

But yield who will to their separation,  
My object in living is to unite  
My avocation and my vocation  
As my two eyes make one in sight.  
Only where love and need are one,  
And the work is play for mortal stakes,  
Is the deed ever really done  
For Heaven and the future's sakes. (65-72)

화자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취미(avocation)와 직업(vocation), 즐기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합일시키는 것으로서 사랑(love)과 필요(need)가 하나가 되고 노동이 즐거운 유희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심미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결합과 성취라는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된다”<sup>38)</sup> 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두 눈이 합쳐서 하나의 시선을 이루듯” 삶의 목표는 필요와 즐거움이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프로스트의 지론임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에서 노동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기쁨과 결실, 즐기는 것과 필요라

38) Robert Penn Warren. *Selected Essays* (New York: Vintage Books.1966.) p. 915.

는 것의 양자의 결합으로 현실과 꿈이 합쳐지듯이 노동과 보상, 필요와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과정으로 기계적인 노동의 성격이 극복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프로스트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현실세계에서의 노동을 통해 삶의 본질을 느끼고 인간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프로스트는 노동에 관련된 그의 많은 작품을 통해, 인생에 있어서 삶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넉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인간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본질을 느끼고, 인간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들을 이겨내서 고독과 소외감과 같은 인간 고뇌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의 시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정신적인 여유에서 용기를 얻어 고독한 삶을 더 새롭고 진지하게 맞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뉴만은 현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프로스트의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한다. 1913년에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인생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농장에서는 보다 개인적으로, 도시에서는 보다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이는 그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sup>39)</sup> 프로스트가 균형을 추구하는 미덕을 격찬했으며, 인생이 앞으로든 혹은 뒤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씨뿌리기」(“Putting in the Seed”)에서도 순박한 농부의 생활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동화되는 모습으로 펼쳐지는 농부의 모습을 잘 표현 한다. 프로스트는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삶의 고뇌를 잊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낸다. 봄이 겨울의 휴식으로부터 농부를 일터로 끌어내고 농부 또한 기꺼이 받아들인다. 또한 작은 씨앗이 땅을 헤집고 나와 탄생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일종의 창조라 할 수 있는 노동의 행위 뒤에 오는 성취와 만족감을 보여준다. 즉, 인간은 주어진 현실에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완수함으로써 고독을 극복하고 인간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밤 저녁 준비가 되거든 나의 일터로

39) Newman, p. 77.

날 데리러 오시오.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하얗고 부드러운 꽃잎들을 묻는 일을  
둘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봅시다.

.....

씨 뿌리는 일로 타오르는 사랑  
이른 출생부터 줄 곳 지켜보면서  
흙이 잡초로 처지는 바로 그때  
아치 모양을 한 튼튼한 씨앗이 어깨로 땅을  
밀어 젖히고 흙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다.

You come to fetch me from my work to-night  
When supper's on the table, and we'll see  
If I can leave off burying the white  
Soft petals fallen from the apple tree

.....

How Love burns through the Putting in the Seed  
On through the watching for that early birth  
When, just as the soil tarnishes with weed,  
The sturdy seedling with arched body comes  
Shouldering its way and shedding the earth crumbs.

(*Putting in the Seed, 1-4,10-14* )

농부 부부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근심 걱정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남편은 지금 뿌리는 씨앗이 머지않아 땅을 헤집고 나오는 모습을 기대하며 진정 기도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씨 뿌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 내는 봄철, 땅의 매력에 이끌린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고 자연의 일부가 된 것이며, 자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씨를 뿌리고 씨가 돌아 대지를 채우는 신비로운 과정과 함께 강한 감흥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편을 데리러 온 화자의 아내 역시 자신의 느낌과 같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따라서 농부 부부가 행하는 봄철의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봄철의 열정에 빠져 사랑을 창조하는 행위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농부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프로스트는 진정한 노동의 의의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노동을 메타포로 하여 그의 작품을 통해 육체적 노동을 인간 삶의 한 조건으로 받아들이

고, 노동의 본질과 의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노동과 결실을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 됨을 통하여 삶의 명상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 III. 결 론

미국의 국민시인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는 자연과 인간을 노래한 시인이다. 프로스트의 시는 뉴잉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의 자연은 인간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삶과 인간 문제에 집중해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서 자연은 단순히 시의 배경이란 차원을 넘어 그가 그리는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더 깊은 향수와 인간애를 보여주는, 인생에 대한 명상과 삶의 해명을 위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그것은 자연이 때로는 인간에게 적의에 차있다 해도 결코 자연이 인간에게 악의에 찬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용기와 지혜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희망과 새로운 삶의 창조자로서의 고마운 자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이란, 프로스트의 시에서 양면성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의 의도와 필요와는 무관한 객체이기에 그 자체의 질서에 따라 변하는 모습은 때로는 인간에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친근하며 풍요로운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냉혹하고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삶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탐구인데, 인간이 자연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저항하는 모습과 더불어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여 수용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인간과 자연, 자연 속에서 인간의 노동 등의 관계를 통해 해명해보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그의 시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직면하여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거나 인간에게 무심하고 냉혹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냉혹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프로스트의시에 나오는 무관심하고 위협적인 자연을 대할 때 인간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단절감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에게 기쁨과 희망, 용기를 주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자연의 거대성, 다양성, 파괴성을 인식한 프로스트는 그로 인한 인간의 공포와 좌절, 불안과 공포, 인간성의 한계를 시 속에 전개한다.

이렇듯 인간에게 혼란과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주는 자연에 대해 프로스트는 관념상으로 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위으로써 혼란스러움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노동행위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 자연은 그 실체는 분명하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양면적인 존재로 불확실한 대상이기에 인간이 자연에 취하는 육체적 행위인 노동을 통해서 직접 부딪히며 인간 존재의 가치를 가늠하고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노동을 통해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인간의 삶에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여 수용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에 맞서서 하게 되는 행위로서 노동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진다. 하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으로서의 노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요로써의 노동이다. 프로스트는 노동의 메타포를 통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곧 즐거움과 필요가 하나가 되는 노동이다. 그는 지상의 삶에 충실하면서 현실과 이상이 조화롭게 일치될 때 그 속에 인생이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고 본다. 참된 의미를 지닌 노동의 기쁨은 창조의 기쁨과 노동 뒤에 오는 성취의 기쁨, 휴식의 기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고된 현실의 노동의 고통을 감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오히려 그 고통은 창조적인 희열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의 소외와 고독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거듭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노동의 실용적 가치와 더불어 인간이 노동행위에서 가져야 할 노동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데, 성실히 노동에 임하는 사랑의 태도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을 안겨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할지라도 노동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사실과 꿈이 이루어진 경지, 그것은 진정으로 창조적인 노동에 다다른 경지이다. 결국, 인간은 현실을 아름다운 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생존의 조건으로서의 고통의 노동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며 노동자

체에서 보람을 찾을 때, 그 고통은 기쁨과 환희로 승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노동행위의 결과는 창조적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확실한 지상세계의 삶속에서 인간의 구원과 인간존재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일종의 유물론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는 형상화의 순환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의 한계와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민했다는 사실은, 그 자신이 자연이나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포근하고 호의적인 쉼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주쳐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져 있으며, 프로스트는 그의 시를 통해 이러한 자연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프로스트는 그의 시 속의 주인공들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삶의 현실을 인식하고 어려운 생존의 조건 속에서도 이에 굴복하거나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현실 속에 강한 의지력과 용기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간 고뇌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기쁨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련을 삶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고 땀 흘리며 노동하는 실천적인 삶의 태도가 인생에 대한 수단이며 의무라는 메시지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 Bibliography

### I. Primary References:

Frost, Robert.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London: Jonathan Cape, 1977.

\_\_\_\_\_. *Selected Prose of Robert Frost*. Ed. Hyde Cox and Edward  
Connery Lathe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II. Secondary References:

Brower, Reuben A. *The Poetry of Robert Frost: Constellations of  
Intention*. Oxford: Oxford UP, 1993.

Cox, Hyde & Lathem, Edward Connery. Ed. "The Figure a Poem Makes,"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Cox, James M.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Cox, Sidney *A Swinger of Birches: A Portrait of Robert Fros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7.

Doyle, John Robert Jr. *The Poetry of Robert Frost: An Analysis*. New  
York: Hafner Press, 1962.

French, Roberts W. "Robert Frost and the Darkness of Nature,"  
*Critical Essays on American Literature*. Ed. Phil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Frost, Robert "Education by Poetry." *Robert Frost: Poetry and Prose*.  
Ed. E. C. Lathem and L. Thomps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Gerber, Phillip L.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Boston: G. K. Hall &

- Co., 1982.
- \_\_\_\_\_. *Robert Frost*. New York: Twayne Publishers Inc., 1966.
- Greiner, Donald J. "The Indispensable Robert Frost," Ed.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Philips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 Lathem, Edward Connery. *Interview with Robert Frost*. New York: Jeffrey Norton Publishers Inc., 1997.
- Lynen, John F. "Frost as Modern Poet,"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 \_\_\_\_\_.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Nature and Pastoral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 MacClanahan, Thomas. "Word I had No one But God," *Centennial Essays II*. Jackson: Mississippi UP, 1974.
- Montgomery, Marion.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 Newman, Lea. *Robert Frost: The People, Places, and Stories behind His New England Poetry*. Vermont: The New England Press, 2000.
- O'Donnell, W. G. "Robert Frost and New England: A Revaluation,"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 Potter, James L. *Robert Frost: A Handbook*.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0.
- Richardson, Mark. *The Ordeal of Robert Frost*. Urban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7.
- Ryan, Alvan S. "Frost and Emerson: Voice and Vision,"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Ed. Phil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 Squires, Radcliffe. *The Major Themes of Robert Frost*.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3.
- Sweeney, John David & Lindroth, James. *The Poetry of Robert Frost: A Critical Guide to Appreciation of Meaning, Form, and Style*. New York: Monarch Press, 1965.
- Thompson, Lawrance. Ed.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4.
- Trilling, Lionel. "A Speech on Robert Frost: A Cultural Episode," E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James M. Cox.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1962.
- Untermeyer, Louis. *The Pocket Book of Robert Frost's Poems*. New York: Henry Holt & Co., 1946.
- Warren, Robert Penn. "The Themes of Robert Frost," *The Writer and His Craft: The Hopwood Lectures, 1932-195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 \_\_\_\_\_. *Selected Essays* New York: Vintage Books. 1966.

- 김학용 「로버트 프로스트 시의 주제 : 인간과 자연」.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진태. 「Robert Frost의 시 연구: 삶의 해명을 위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5.
- 김정희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극복」.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
- 송귀녀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노동의 시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6.
- 신재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자연시: 그 일탈의 미학』. 서울: 태학사, 2004.
- 오동수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자연과 조화된 노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2003.
- 유조현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자연과 노동의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3.

- 윤영혜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인간고뇌의 양상과 극복」.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7.
- 이영걸, 「Robert Frost의 시의 인생론적 의의」. 『영어영문학』 51-52, 한국영어영문학회, 1974.
- 이현정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노동의 여행의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 장정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통해 본 고독과 소외의 극복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 전해윤. 「Robert Frost의 시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극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7.
- 정소영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1.
- 조신애. 『로버트 프로스트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자연과 노동의 양면성』.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Labor Harmonized with Nature  
in Robert Frost's Poetry

Yong-ill Cho

(Supervised by Professor Yoon-Deok Hur)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labor harmonized with nature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and to study what efforts Frost made to recognize the reality of human beings as it is and how to overcome it for survival under uncertain living conditions.

He wrote a large number of poems about the people who lived in the beautiful nature of New England. The subject of Frost's poetry focuses on nature and the people in it, as he regards Mother Nature as an imaginative source to explain the basis of human existence.

Frost regards nature as an objective existence, so the order of nature moves, regardless of the will of human being, causing a sense of confusion and uncertainty. Men cannot survive without Mother Nature, the basis of their lives, and in that frame, men inevitably conflict with her.

In his poetry, Frost has described nature with negative imagery, which conveys to us fear and despair in a destructive manner. He admits the limit for those who standing against Mother Nature, seeking an ultimate existence. By regarding nature as so cold, even harmful to men, he expresses how men may

---

※ This thesis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of 2012.

feel when facing her hostility. Therefore, the obligation of men is, as long as they live, to undertake their responsibilities faithfully, while at the same time also adapting themselves to their environment through endless struggles with courage and determination. As men are unavoidably under the control of Mother Nature, Frost suggests that men should accept their hostile environment while trying to live harmoniously with it. At the same time, he also suggests that we live our lives wisely by accepting a realistic view of nature for what it is.

In the second place, Frost also considers physical labor to be another means by which to cop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nature. In his poems, labor is not a ideological pursuit but a practical one that makes it possible for us to cope with nature itself. In other words, Frost delivers the message through his poems that men should not only embrace nature and live harmoniously within its precepts, but also pursue a life based on a reality that endlessly struggles with nature through determination and courage. The maxim that Frost asserts in his poems is that man should survive and build up his identity by actively overcoming nature, although it is inevitable for human beings to be a part of nature. Thus, his poetry clearly shows us a way of overcoming anguish and suffering in unstable nature through labor; men will eventually derive worth of living from the joy of labor itself. In this context, Frost's poetry can survive beyond the time and space, deeply touching contemporary readers.